

게으른 거미 아난시

원작자 | 가나 민담, 비한 드 야허

글 | 김은파

원작 글 | 가나 민담

원작 그림 | 비한 드 야허 (Wiehan de Jager)

글 | 김은파

편집 | 김은파, 이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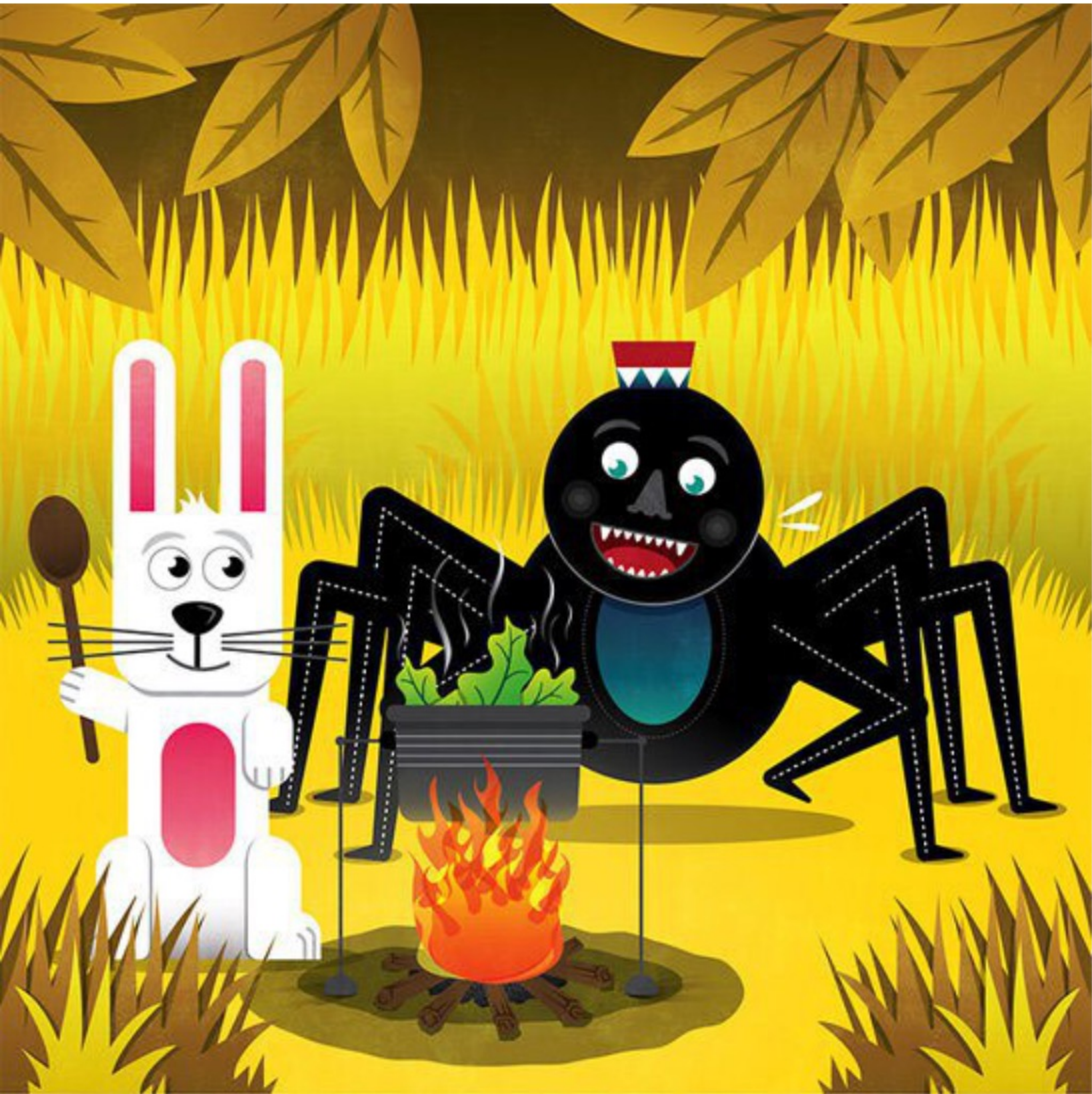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황창영





아난시라는 거미가 있었어요.
아난시는 아주 게을렀어요.
그래서 스스로 요리를 하지 않고
매일 친구네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었어요.



어느 날 아난시는 토끼네 집
앞에서 맛있는 냄새를 맡았어요.
아난시는 음식을 얻어먹을
생각에 신이 났어요. 토끼가
아난시에게 말했어요.

“아직 요리가 안 끝났어.
기다리면서 설거지를 도와
줄래?”

아난시가 대답했어요.

“미안, 나는 할 일이 있어.
나중에 다시 올게.”



“요리가 끝났을 때 어떻게 널 부르지?” 하고 토끼가 물었어요. 아난시는 말했어요.

“내가 거미줄을 칠게. 한쪽은 내 다리에 묶고 다른 한쪽은 냄비에 묶을 거야. 음식이 준비되면 줄을 당겨 줘. 그럼 바로 올게.”

아난시는 줄을 냄비에 묶고 토끼네 집을 떠났어요.



아난시는 원숭이들이 맛있는 콩 요리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난시, 이리 와. 음식이 거의 다 됐어.”

원숭이가 말했어요. 아난시는 대답했어요.

“나는 할 일이 있어. 내가 거미줄 한쪽을 다리에 묶고 다른 한쪽을 냄비에 묶을게. 요리가 끝나면 줄을 당겨 줘. 그럼 바로 올게.”



아난시는 멧돼지네 집 앞에서
달콤한 냄새를 맡았어요.

멧돼지가 말했어요.

“고구마 요리를 만들고 있어. 이
포크로 조금만 저으면 완성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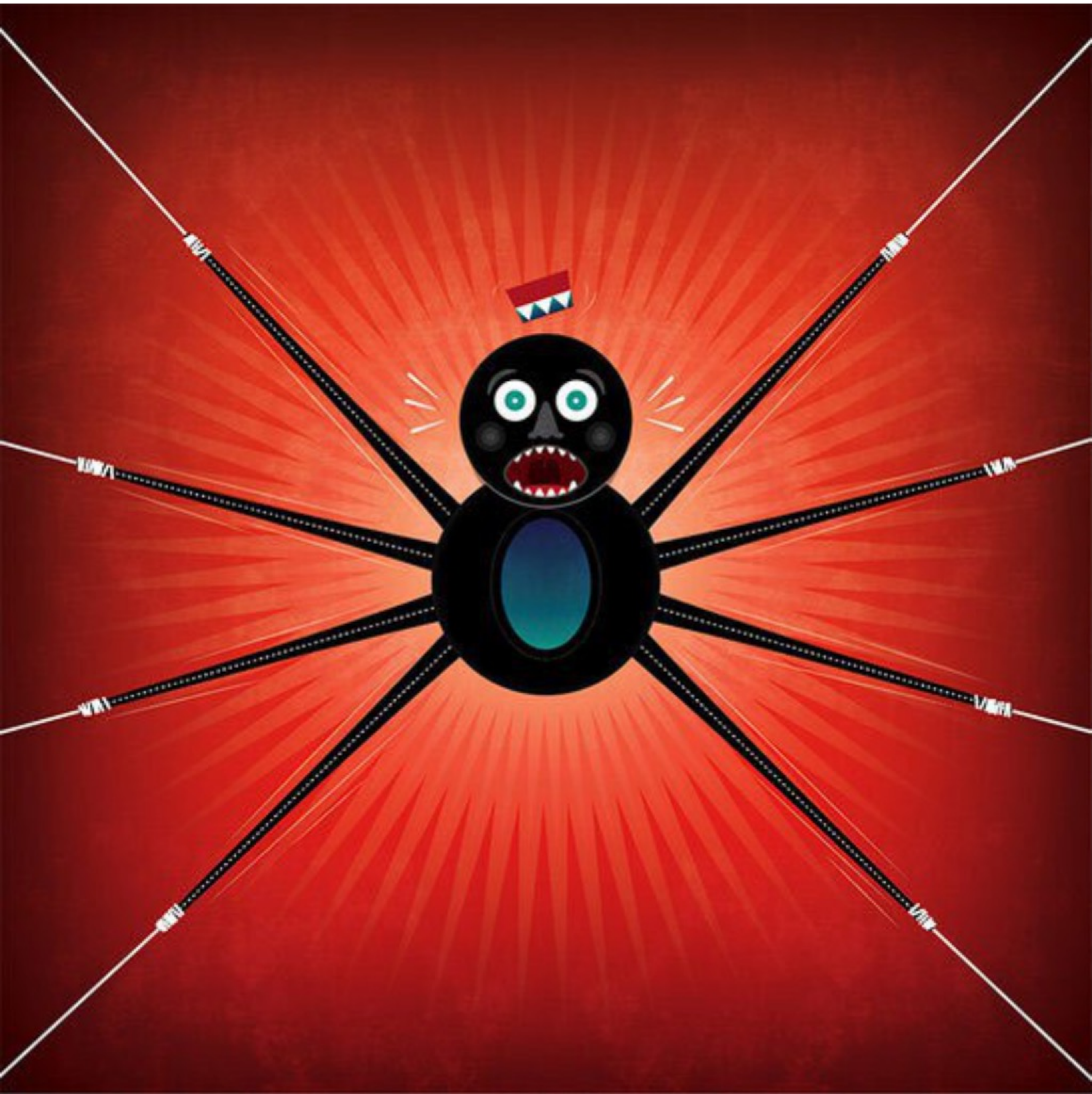
아난시는 말했어요.

“난 좀 이따가 올게. 내가 거미줄
한쪽을 다리에 묶고 다른 한쪽을
냄비에 묶을 거야. 고구마 요리가
완성되면 줄을 당겨 줘.”



강에 도착했을 때, 아난시의 다리 여덟 개는 모두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냄비와 이어져 있었어요. 아난시는 첫 번째 다리에 묶인 줄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토끼네 음식이 준비되었군!’ 아난시는 입맛을 다시며 생각했어요.



아난시는 두 번째 다리가
당겨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도요.
모두가 동시에 줄을 당기고
있었어요.

“멈춰!”

아난시는 아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사이 아난시의
다리는 쪽쪽 잡아당겨져서 점점
가늘어졌어요.



마침내 줄은 더 버티지 못하고
모두 끊어졌어요. 하지만
아난시의 다리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미 아난시는 이렇게 해서
가늘고 긴 다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게으른 거미 아난시” is a derivative of “Lazy Anansi” by Ghanaian Folktale and Wiehan de Jager, used under CC BY 4.0.
“게으른 거미 아난시”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